

지부총파업

일진자본 겨냥한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6월 26일부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회는 더 이상 사측의 노조파괴 수작을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자본이 노조를 깨려고 달려든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일진 자본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가장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 사례는 노동법 개악의 표본!

지금 일진다이아몬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있을 노동법 개악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지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여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근로로 무력화 시킬 것입니다. 자본은 그 힘으로 노조와의 교섭은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지부 총파업! 목표는 일진 자본이다!

지부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지부의 투쟁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지부 운영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더이상의 노조파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투쟁을 사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더이상 자본들의 노조파괴 공작이 이 땅에 발디딜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비정규직 철폐!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3 총파업!

7월 3일(수)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20만명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사상 최대 규모의 비정규 노동자 공동파업입니다. 이 날 집회에는 10만여명의 노동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은 커녕 대량해고에 처했습니다. 7월 1일부로 요금수납원 1,500명이 해고됩니다. 조합원들은 6월 30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7월 한달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사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의 총파업 투쟁이 노동법 개악을 멈추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